

폭염

출장 갔다가 서울역에 내려서 회사로 걸어가는 길 집이 없고 잘 데가 없어서 길에서 자는 아저씨가 나를 향해 대뜸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라서 움찔했지만 쳐다보지 않고 내 갈 길 갔다 회사에 돌아와서 출장부 올리고 그제야 커피 한잔하며 숨 돌리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다 시발 내가 만만해? 집도 없는 루저새끼들이…… 퇴근하고 낮에 걸었던 길을 돌아가 나한테 소리 지른 아저씨를 찾아갔다 아저씨들은 아까보다 더 취해있었다 일곱 시도 안 됐는데 벌써 끓아떨어진 사람도 있었다 냄새가 났다 나한테 고함친 아저씨는 잔디색 티셔츠 입고 있었는데 잔디잔디잔디 중얼거리면서 아저씨 무리를 살피고 다녔다 장수 막걸리 먹고 있는 아저씨한테 잔디 아저씨는 어디 있는지 물었다 아저씨가 막걸리 한 병 사다 주면 알려주겠다고 해서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그곳에 잔디 아저씨가 있었다 이백 원이 모자라서 담배를 못 사고 있었다 아직 어려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안타까워서 그냥 내가 계산하고 잔디 아저씨를 끌고 나왔다 술에 취

한 아저씨는 나폴나폴 달려 나왔다 잔디 아저씨한테 아까 왜 나한테 소리 질렀냐고 따졌다 아저씨는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발음이 다 새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다 내가 침터에도 가보고 했는데 어찌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아저씨가 점점 웃겼다가 불쌍했다가 웃겼다가 불쌍했다가 내가 살다 살다 노숙자 담배를 다 뺏어 피웠다 잔디 아저씨 담배 한 갑 더 사주고 아차 싶어서 장수 막걸리 한 병 쥐여줬다 절대 아저씨가 마시지 말라고 이거는 꼭 장수 아저씨한테 주라고 신신당부해서 보냈다 무리들에게 걸어가는 아저씨의 어깨는 넓었고 다리는 가늘었다 회색 양말 고무줄이 늘어나 발목에서 찰랑댔다 나한테 아저씨 냄새가 났다 정확히는 아저씨가 피우는 담배 냄새가 났다 담배도 존나 맛있는 거 피우는 아저씨 사실 나도 잔디색 티셔츠가 있다 노숙자 주제에 나랑 같은 티셔츠 입는 아저씨가 거슬렸다 집에 가면 그 티셔츠부터 버려야겠다 어디 흘러 흘러 아저씨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 옷수거함이 아니라 종량제에 버릴 거다 옷에서는 아마 아저씨 냄새가 날 거다 앞으로 그 길로는 절대 안 다닐 거다 다시는 안 마주칠 거다 집에만 있을 거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우리 집 한 푼 두 푼 아껴서 산 우리 집 나는 절대 저렇

게 되지 말아야지 고무줄 늘어난 양말도 다 버려야지 집 있는 사람처럼 하고 다녀야지 막걸리도 이제 안 마셔야지 이게 다 잔디 아저씨 때문이다 잔디 아저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잔디 아저씨가 나한테 소리만 안 질렀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잔디 아저씨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쉼터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앉았어도 잔디 아저씨가 처음 길에서 잔 날 경찰이 잔디 아저씨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별 거지 같은 우연이 다 있다 어떻게 그런 불행이 한 사람한테 그것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잔디 아저씨 존나 불쌍하다 잔디 아저씨가 장수 아저씨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누가 거기 살고 있을까 다 철거됐을까 신축 대단지가 들어섰을까 경비 아저씨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자동차에 대고 넋죽 인사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놀이터는 있을까 놀이터 바닥은 우레탄일까 모래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인조 잔디가 깔려 있을까 잔디 아저씨는 한 번이라도 잔디 위에 누워서 잔 적 있을까 거기 누워서 주상복합 아파트 인조 잔디 위에서 뛰어노는 자기 딸 얼굴 보면서 웃은 적 있을까 꿈에라도 있을까 애들이 잔디 아저씨 등 위에서 공을 찬다 공은 나무에 맞아 튕겨 나간다 공이 떨어진 곳에는 분홍색 꽃들이 피어있다 잔디

아저씨 등에서 땀이 난다 잔디 아저씨는 잔디 위에서 자다가 잔디가 되었다 등 위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가고 경비 아저씨가 잔디 아저씨를 밟고 지나가는 차에 구십 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사장님 잔디 아저씨가 잠들면 주상복합의 불이 꺼진다 그때 잔디 아저씨는 소리죽여서 운다 소리죽여서…… 이젠 나도 모르는 이야기